

#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 다루기: 애도(mourning)를 통한 이해

장 동 진\*

## 국문초록

인간에게 죄의 문제는 보편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상담에서는 죄의 문제를 인간의 병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상담의 실제에서는 죄의 문제는 몇몇 성경적 상담자들 외에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성경에서 애통은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슬픔을 말하기도 하고,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그 중 대상상실의 고통을 일반 상담에서 애도 개념을 통하여 연구되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상담에서의 애도 개념을 통하여 기독교상담에서 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신분석이론, 애착이론 및 심리적 외상 관점을 통한 애도의 이해는 다음의 제안점을 제공한다. 첫째 애도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죄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줄 수 있다. 둘째, 애도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기에, 상담에서 죄를 다룰 때에도 시간이 필요하며, 내담자와 함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애도가 필수적으로 고통을 동반하기에, 죄를 다룰 때에도 고통에 직면해야 한다. 넷째, 성공적인 애도에서는 인지적인 재구조화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죄를 다룰 때에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애도가 단절이 아닌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내담자가 문제를 지닌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제어:** 기독교상담, 죄, 일반 상담, 애도, 통합

• 논문 투고일: 2018년 9월 28일      • 논문 수정일: 2018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1월 2일

\*루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 이 논문은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I. 여는 글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보편적이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9절)고 말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10절)고 말하고 있다. 이는 비단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불신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포함한 믿는 신자들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Erickson, 1983). Erickson(1983)은 이러한 죄의 결과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결과, 죄인인 자신에게 미친 결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결과 하나님의 싫어하심, 죄책, 하나님의 형벌을 피치 못함, 육체적 및 영적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죄가 개인에게 미친 결과로 노예화, 현실로부터의 도피, 죄의 부정, 자기 기만, 무감각, 자기 중심성, 불안함을 갖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경쟁, 공감하지 못함, 권위의 거부 및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인간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독교상담에서는 죄의 문제를 인간의 병리와 함께 바라본다(Powlison, 2001; 김용태, 2006; McMinn, 2008). 특히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경적 상담의 경우 인간 병리 현상에 대하여 죄 이론(sin theory)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철학이다.”(김용태, 2006: 181) 뿐만 아니라 Roberts(1997)와 Crabb(1975) 등의 기독교상담학자들도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근본을 죄라고 보았다.

Adams(1979)는 죄의 결과로 죄책감, 습관, 그리고 비참(misery)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참함은 신체화 증상 및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Welch(2000; 2001; 2004)는 중독, 경계선, 자해 등의 문제가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고, Powlison(1997; 2003;

2004)은 분노, 걱정, 고난 등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Collins (1993)는 죄로 인하여 나쁜 습관과 중독성의 노예가 되고, 인지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중심적이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으며,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보았다. 김용태(2018)는 인간이 죄인임으로 인하여 분노, 두려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유발한다고 보았는데,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 당위적 분노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회피하며, 존재적 수치심으로 인하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기독교상담 이론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의 병리에서 중요한 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있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수의 학자들만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성경적 상담자들인데, 대표적으로 Adams(1986)는 성경적 상담 과정의 한 요소로서 교정(correction)을 설명하면서 죄의 고백과 용서, 죄를 버리기 등을 언급하지만, 통합주의자와 같은 다른 기독교상담자들은 실제 상담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그리고 심지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McMinn, 2008).

이에 본 소고에서는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일반 상담학적 관점으로 애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성경에서는 죄와 관련된 체험으로 탄식(롬 8:23), 슬픔(히 12:11), 눈물 및 통곡(롬 12:15, 렘 13:17)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애통(哀痛)이 있다. “슬퍼하고 마음 아파함”을 의미하는 애통은 성경에서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미 1:8, 사 15:3, 막 5:4, 눅 6:25). 특히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

음을 말하며, 단순히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 시키심을 나타내고 있다(Pink, 2015). 또한 이러한 애통은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이가 겪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다.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묶고 애통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무엘하 1장 26절에는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애통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애통하는 심정은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 이후의 겪는 슬픔이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고통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반면 일반 상담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통하는 애통에 해당하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랑하는 이의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애도(哀悼)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사전적으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을 의미하는 애도는 단순히 슬픔과 괴로움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대상의 상실 이후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의 의미 중 대상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의미하는 애도라는 일반 심리학적 개념을 통하여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도움이 되는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이해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져 왔다(Adams, 1973; Menninger, 1973; Jones & Butman, 1991; Collin, 1993; Yarhouse, Butman, &

McRay, 2005; 김용태, 2006; McMinn, 2008).

Menninger(1973)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죄(sin)”라는 용어 보다는 “범죄(crime)” 또는 “질병(sick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위가 교회나 가정으로부터,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국가로 옮겨졌고, 이는 죄를 바라보는 설명의 틀(explanatory framework)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며, 죄를 엄격하게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질병(sickness)으로 변화하면서 더 이상 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관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능 수준을 증가시키는 개입이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음을 의미한다. 이에 그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질병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책임이 필요한 죄의 문제로 볼 것을 제안했다.

Adams(1973)는 상담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담자들은 죄의 근본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려고 한 것에서부터 죄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았다. 계속해서 그는 욕구 지향적 삶(desire-oriented life)으로부터 모든 공통적인 죄가 자라났다고 주장하며,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4가지로 보았다. 첫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거부는 인간 외적, 내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인간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낙원으로부터 추방이 있었으며, 땅의 저주와 남자와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나타났다. 인간 내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고, 고통스러운 감정적 반응 안에서 나쁜 양심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죄는 삶

을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었다. 셋째, 사람들은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다. 넷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blame shifting) 시작했다. 그들은 남을 탓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환경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했다.

Collins(1993)은 기독교상담자로서 죄의 문제를 보다 신학적인 입지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죄의 정의, 기원 및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는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여 죄에 대하여 네 가지 관점을 제안했다. 첫째, 죄는 개인적인 이탈 또는 반항 행위이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며,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 등이 포함되여진다. 둘째, 죄는 하나의 태도이다. 죄는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행위 그 이상의 것이다. 겉으로 하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들 안에는 죄된 마음을 품고 있다. 셋째 죄는 하나의 세력이다. 죄는 사회에 스며들어 인종차별 등과 같은 운동(movement)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편견이나 자기 중심적 폭력 행위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넷째, 죄는 하나의 상태이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부패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고쳐볼 수도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또는 그는 죄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는데 하나는 불신으로서의 죄와 다른 하나는 반항으로서의 죄이다. 그는 창세기 3장에서 유혹을 받는 아담의 모습을 그리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신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죄는 인간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그가 세워 놓은 기준들에 대한 반항이다. Collins(1993)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록했는데, 그는 죄의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인간 상호간의 분리,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분리, 자연으로부터의 분리라는 4가지를 제안했다.

Jones와 Butman(1991) 역시 죄를 행위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죄의 본성(sin nature)을 의미하며, 인간을 묶는 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죄된 본성은 우리들의 유한성 또는 연약함과 관련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유한성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의도적인 도덕적인 악을 드러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우리들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 모든 선택을 흐릿하게 하며, 인간의 의지가 속박되어 불순종의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Yarhouse, Butman, McRay(2005)는 인간의 병리를 설명하는 틀(explanatory framework)로서 죄에 대한 이해가 현대 심리학 및 정신병리학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다음의 6가지 주제를 제안했다. 첫째, 인간의 병리를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려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인간의 생각과 동기가 우리들이 진정 누구이고, 무엇에 대하여 신경쓰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인간은 타락했고,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 죄는 특정한 행동 또는 상태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죄를 상태로 이해한다면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셋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로부터 영향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대다수의 상담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 넷째,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영향받고 있다. 우리들은 자신의 죄와 그로인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McMin(2008)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이 죄의 증상이라고 주장했다. 다섯째, 죄는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죄는 단순히 정서적 또는 심리적 곤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Yarhouse, Butman, McRay(2005)는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신경성 식욕 부진증 등 섭식장애가 서양 사회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정신병리임을 예로 들었다. 여섯째, 우리가 죄와 정신병리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은혜와 구속의 치유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구해야 한다.

김용태(2018)는 기독교상담의 원리 중 첫 번째로 죄인의 원리를 제안하며, 기독교상담에서 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나타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관능성, 자기중심성,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관능성으로 인하여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하였으며,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존재,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불완전하게 되었는데, 특히 감정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수치심, 두려움, 분노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위적 분노와 죽이는 행동, 대상적 두려움과 숨는 행동, 존재적 수치심과 가리고 덮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상담에서 인간이 지닌 죄의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이를 상담의 실제에서 어떻게 내담자들과 함께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어지지 않았다.

Adams(1986)는 상담의 과정을 가르침, 확신, 교정, 훈련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교정에서 죄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교정이란 내담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정의 단계에는 회개, 죄의 고백과 용서, 죄를 버리기, 회복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회개는 자신의 지은 죄를 후회하며 변화하려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며, 죄의 고백과 용서는 실제로 자신이 지은 죄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죄를 버리기는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거부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가족, 공동체 등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작업을 필요로 한다.

Collins(1980)는 상담에서 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다음의 개념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이해와 수용인데, 상담자들은 죄의식을

지니고 있는 내담자들을 대할 때 비난하지 않고, 기꺼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는 통찰의 필요이다. 이는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죄의식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는 교육인데, 이런 과정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데 첫째로 내담자는 자신의 기준이 옳은지, 틀린지 재평가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하며, 둘째로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개와 용서인데,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하여 내담자를 강요하는 것은 상담자의 역할이 아니며, 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도 있다.

김태영(2005)은 여러 기독교상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사실적 이해, 2단계 하나님의 사랑 힘입기, 3단계 자신의 지배적인 욕구 확인, 4단계 자신의 반응과 죄 문제 이해하기, 5단계 죄 고백하고 돌아서기, 6단계 용서와 자유함 확인하기, 7단계 변화하기(삶의 구조화), 8단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이와 같이 상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으로 내담자를 이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기독교상담자들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하고 있다(Yarhouse, Butman, & McRay, 2005; McMinn, 2008). Yarhouse, Butman, McRay(2005)는 기독교상담자들은 자신들이 내담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언급하면, 그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타인의 정죄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을 두려워하며, 또한 사

람들의 정신 건강과 안녕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인식보다는 도덕심을 강조하는 비전문가처럼 비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McMinn(2008)은 상담과 기독교의 통합을 주장하는 통합주의자들이 죄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지 않으며, 죄보다는 은혜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고 현 세태를 비판했다.

## 2. 성경에서 죄와 애도의 이해

성경에서 “애도”란 단어를 많이 쓰이지 않는다. 개역개정 성경의 경우 총 2번이 사용되었는데, 에스겔 27장 32절과 사무엘하 3장 31절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단어인 “애통”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개역개정의 경우 총 34번이 사용되었다. 이 때 사용되어진 애통은 사랑하는 이의 상실로 인한 자연적인 슬픔을 뜻하기도 하며(창 23:2, 창 37:34, 창 50:11, 삼하 1:26), 죄로 인한 슬픔을 뜻하기도 한다(미 1:8, 사 15:3, 막 5:4, 눅 6:25).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는 구절에서 나오는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펜테오(πενθείν)는 슬픔을 의미하는 헬라어 중 가장 강력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이다(박만석, 1995). 또한 애통하는 자(οἱ πενθούτεες)는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보이는 극심한 슬픔과 비통을 나타내는데,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슬퍼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이창훈, 2000).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가 무엇을 슬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마경일, 1970; Strecker, 1992, Jeong, 2008, Pink, 2015). 첫째는 물질적인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오덕호, 1999). Powell(1996)은 이를 세상적인 재물

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겪는 애痛으로 이해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평민들은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착취당함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Mollenkott(1993)는 이를 주변인(the marginalized)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복의 선포는 여성, 소수민족인, 가난한 사람과 같은 주변인에게 제시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들의 권리 빼앗김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고, 애痛하는 자는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았다. Jeong(2008)은 이들을 영적으로 애痛하는 자(spiritual mourners)와 구별되는 사람들로 보며 사회구조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마경일, 1970). 이는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을 의미하며, 또한 구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Carter, 2005).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했으며, 경제적 수탈과 정치적 압제에 놓여있었고, 만연한 로마의 권위 아래 고통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애痛하는 자는 압제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슬퍼함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 애痛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Powell, 1996; 마경일, 1970; 오덕호, 1999; 박수암, 1990; 김경완, 1987; Pink, 2015).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痛한다(Powell, 1996). 이는 세상적인 애痛이 아닌 영적이며 윤리적인 애痛인데, 박수암(1990)은 세상의 불의와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구원을 하나님으로 부터만 기대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오덕호(1999)는 세상에 팽배한 죄의 세력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죄에 빠진 고통을 겪을 때, 자시의 부족함에 대한 고통으로 좌절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Pink(2015)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나오는 애통을 영적인 애통으로 이해했다. 영적인 애통은 영적인 슬픔이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로 인한 슬픔을 의미한다. Pink(2015)는 이를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의 슬픔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세리의 슬픔과 동일하게 보았다. 더 나아가 Pink(2015)는 애통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역한 것에 대한 슬픔, 우리의 영적 상태의 결핍에 대한 슬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한 애통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동일하게 김경완(1980) 역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애통을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으로 다윗 왕의 예를 들었다. 다윗 왕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야를 죽이고 난 이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가 밝혀지고 난 다음 요가 젖을 정도로 자복하여 울었던 것을 이와 동일한 슬픔으로 보았다. 오덕호(1999)는 이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민감성이 있어야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죄의 민감성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에 대하여 자신의 죄 앞에서 괴로워하며 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tott(2011) 역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너무 중시하여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에 주의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슬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며, 애통에 대하여 강조했다.

마태복음 5장 4절 이외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엘 2장 12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하며 여호와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에스라 10장 1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

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통스럽게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며 애통하고 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에 대한 축복도 함께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를 받음”이라는 표현은 신적인 수동태(divine passive)도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동작을 의미하고, 죄를 인식하고 죄의 고통을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의미한다(박수암, 1990). Pink(2015)는 단순히 그들이 애통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만큼 그렇게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는 은혜로운 약속을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 하나님의 위로는 자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성취된다. 다시 말해, “위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Pink, 2015: 25)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성령으로 인하여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성도들은 지속적인 위로를 받는다. 셋째,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천국에서 받게 되는 최후의 위로이다.

### 3. 일반 심리학에서 애도의 이해

#### 1) Freud의 정신분석에서 애도의 이해

애도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정신분석학자는 Freud인데, 그는 1917년 “Trauer und Melancholie(애도와 멜랑콜리)”라는 논문을 발

표하며, 애도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에서 독일어 Trauer는 슬픔의 감정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그 슬픔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애도를 뜻하는 mourning으로 번역되었다. 이 논문에서 Freud는 단순히 슬픔이란 감정을 우울증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상실 후에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애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의 문을 연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애도에 대해 말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Freud는 애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울증과 구분되는 애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이드는 애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국가, 자유, 이상 등과 같이 그 사람의 자리에 있던 추상적인 것들의 상실에 대한 보통의 반응이다.”(Freud, 1917: 246) 그는 애도는 병리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애도에 간섭하고 끼어드는 행위가 무익하며 해로운 행위라고 보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대상에게 부과되었던 모든 리비도가 철회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리비도가 철회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과 반발심이 너무 강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현실을 수용하지 않기도 한다(Freud, 1917).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고, 건강한 애도자는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 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상에게 투여되었던 리비도를 대상으로부터 철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고통을 정서적 수준에서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정서적 필요와 애착을 철회하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겪기 때문이다(김홍근, 2010).

Freud는 “리비도를 대상에 연결하는 모든 기억과 모든 기대는 현재화 되고 과투여 되었다가, 그 각각에 대해 리비도의 분리가 일어난다.”(Freud, 1917: 246)고 주장했는데, 이는 애도의 과정이 사별자에 대한 기

역에 리비도가 과투여되는 과정과 이러한 과투여가 서서히 대상에게서 분리되는 과정 두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Freud (1917)는 애도의 목표를 상실한 대상에 대한 기억과 희망을 분리시키는 (detach)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대상에게 투여되었던 리비도가 자신에게 돌아오면,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임진수,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임진수(2013)는 애도를 독립된 주체로서 홀로서기를 하는 최초의 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도란 현실검증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에게 향했던 리비도를 대상에게서 철회하는 과정으로, 최초의 애도 대상은 어머니이고, 따라서 최초의 애도는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애도는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과 그로 인한 대상으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을 의미한다.

또한 임진수(2013)는 그 과정에서 내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내사는 대상의 어떤 특성을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은 자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자아는 내사를 통해 대상에 대한 포기를 쉽게 할 수 있다. 이제는 밖에서 사랑의 대상을 찾을 필요 없이 나를 사랑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사는 대상을 포기하는 유일한 조건이 될 수 있고, 대상 리비도를 자기애적 리비도로 변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2) Bowlby의 애착이론에서 애도의 이해

애착이론의 창시자인 Bowlby의 초기 연구는 주로 상실을 경험한 유아들이 저항, 절망, 냉담, 위축 등 어른 못지않은 정서적 고통을 느끼고, 이러한 상실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와 아이와의 이별이 아이가 지닌 근본적인 유대관계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에 Bowlby는 이러한 유대관계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찾고자 했다(Holmes, 2005). Bowlby는 기존의 정신분석과 대상관계이론이 주장하는 유아와 엄마와의 결속이 본질을 놓쳤다고 보았는데, 리비도적 추동의 충족과 만족할만한 엄마의 젖가슴을 강조한 두 이론 모두 엄마와 유아와의 애착 그 자체를 독자적인 것으로 보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애착 그 자체를 1차적인 동기로 생각했다(Holmes, 2005).

애착이론에서는 공간, 즉 물리적인 근접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Holmes, 2005; Wallin, 2010). 애착의 근본적인 속성은 유아가 양육자와 물리적인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에서도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Wallin, 2010). 이러한 애착관계에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 보호해주는 애착 대상을 살피며 근접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둘째, 낯선 상황에서 탐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안전기지로서 애착 대상을 사용하며 셋째, 애착 대상과의 분리는 저항을 일으키는데, 실제 혹은 곧 일어날 것 같은 분리는 애착 행동의 특징인 근접성을 추구하는 행동을 유발한다(Weiss, 1982).

상실과 애도를 이해함에 있어 애착이론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Bowlby가 자신의 3부작 *Attachment and Loss*의 마지막 파트로 상실(loss)을 다루면서 직접적으로 애도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애착이론이 주 양육대상의 상실이 발생했을 때 수반되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에 대한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Bowlby(1980)는 대상과의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애착을 생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적 동기를 지닌 근원적인 행동 형태라고 보며, 상실 이후 겪게 되는 일련의 애도과정을 다음의 네 단계로 설명했다. 애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감각(numbsness)의 단계이다. 사별자는 애착 대상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멍한(stunned)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 다음은 상실한 대상을 그리워하고(yearning) 찾는(searching)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고인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말미암아 고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또는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은 공상과 환상에 시달리게 된다(Bowlby, 1980). 하지만 낯선 사람을 고인으로 오해를 했다가 착각이라고 인지하게 되면, 적대감, 분노, 그리고 원망이 폭발하기도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혼란(disorganization)과 절망(despair)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별자는 앞 단계의 정서적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애착 대상의 죽음을 점차로 인정하게 된다. 결국 사별자는 애착 대상의 상실이 영속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후 정신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조직 재편성(reorganization)의 단계는 사별자가 고인이 없음에도 건장한 자아로 나아가고 사회에 적응적으로 재편성되는 단계다. Bowlby (1980)는 대상으로부터 리비도의 철수를 강조하는 Freud(1917)과는 다르게, 관계의 지속(persistence of relationship)을 주장했다. 이 단계에서 사별자는 고인과 관련되어 발전시켰던 가치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고인이 자신 안에서 함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는 고인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이 전 단계에서 느꼈던 분노, 좌절,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을 제공하게 된다. 애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상실의 고통을 줄이고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현실에 적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큰 혼란과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

### 3) 심리적 외상 관점을 통한 애도의 이해

애도를 이해함에 있어 Freud의 정신분석적 관점과 Bowlby를 비롯한 대상관계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 애도에 대한 새로운 이

해의 시도가 생겼고, 그 중 하나의 관점이 외상(trauma)과 PTSD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애도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Horowitz, 1986; Rynearson & McCreery, 1993). 인간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된다. 하지만 어떤 사건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의 마음에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고통스러운 사건을 남기는데,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입은 상처를 외상(Trauma)이라고 한다(권석만, 2014). 죽음과 같은 상실은 심리적 외상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사건들이다. 특히 죽음이 자살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 등 자연스러운 상실이 아닐 경우 심리적 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Zissok, Chentsova-Dutton, & Shuchter, 1998).

상실과 같은 충격적인 외상을 경험하고 난 후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하는데, 4가지 유형의 심리적 증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침투 증상(intrusion symptoms)으로 사건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이 반복적으로 의식에 침투하여 재경험 되는데, 과거가 끊임없이 현재 속으로 침습하는 것이다. 둘째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자극의 회피가 있는데, 외상 사건의 재경험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억, 생각, 감정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셋째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와 감정에서의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넷째로 각성과 반응성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 사고한 일에도 놀라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권석만, 2014).

상실 이후 심리적인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과정을 애도라고 볼 때, 상실이 심리적 외상이 되고, PTSD로 이어진다는 것은 애도과정에서의 문제로 볼 수 있다(Bonanno & Kaltman, 1999). 다시 말해, 상실의 슬픔이 해소되지 못하고 반복적인 경험과 회피의 악순환 속에 있는 것이다.

심리적 외상 관점으로 보면 애도에서 외상 경험에 대한 의미의 재통합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Horowitz, 1986; Janoff-Bulman, 1992). 심리

적 외상 경험은 개인이 지닌 자신과 세계에 대한 핵심 가정을 파괴하는데 이러한 신념은 세상의 우호성에 대한 신념, 세상의 합리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다(권석만, 2014). 따라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적 신념 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외상 사건이 인지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심리적 외상 관점에서 애도는 상실과 같은 심리적 외상 경험이 기존의 신념 체계와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 하는데, Bonnano와 Kaltman(1999)는 애도 과정에서 외상을 겪은 사람이 외상 사건을 보다 큰 의미 구조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외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데(Bonnano & Kaltman, 1999), 이는 인지적 재구성을 촉진하는 한 편 공포 기억구조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공포 기억구조를 기존의 기억구조와 통합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권석만, 2014). 이러한 애도에 대한 외상 관점은 자신이 겪은 외상 경험을 타인과 나누는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경험,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반추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자신의 삶에 대한 조망이 확대되고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외상 후 성장(posttraumaic growth)”의 개념으로 이어졌다.

#### 4. 애도의 과정

애도는 “의미 있는 애정 대상을 상실 한 후에 따라오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 과정”(Moore & Fine, 2002: 269)을 의미한다. 이는 애도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하며, 거쳐가야 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특히 Worden(2002)은 애도에 대하여

Freud의 사별을 애도하는 작업(grief work)의 개념을 수용하여 애도자가 수동적으로 그 단계(stage)나 국면(phase)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애도자는 행해야 할 과업(work)이 있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별 슬픔을 겪는 애도자는 애도를 끝내기 전에 다음의 네 가지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과업은 애도자가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곧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을 말한다.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현실의 부인과 “우리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 “나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면서 상실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사별자가 부인과 과소평가를 지속하게 되면 두 번째 과업으로 넘어가기 힘들다. 상실의 두 번째 과업은 사별 슬픔의 고통을 겪으며 애도 작업을 해내는 것이다. 윤득형(2018)은 사별자에게 슬픔의 감정을 회피하도록 하는 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예를 들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만하면 됐어” 등의 말이다. 이에 Parkes(1972)는 사별 슬픔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애도의 과정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과업은 슬픔의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과업은 고인을 잃은 환경에 적응하기다. 이러한 적응은 고인을 상실 한 이후 일상생활에서 적응하는 외부적응, 고인의 죽음 이후 정체감에서의 변화에 적응하는 내부 적응, 그리고 사별자의 믿음, 가치관,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 새롭게 적응하는 영적 적응이다. 마지막 네번째 과업은 고인의 감정적 재배치와 삶을 함께 살아가기인데, 이는 사별자가 정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고인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Cole(2008)은 Worden의 마지막 단계를 좀 더 구체화하여 설명했는데, 상실을 재배치하는 것은 마음 한편에 고인을 기억하는 공간을 두는 것이지만 동시에 고인에 대한 생각

이 사별자의 감정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여, 고인을 추억할 때 꺼내어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bi-Hashen(1999)은 애도의 과정을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상담자가 취해야 할 4가지 애도 과업(grief work)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과업은 사별이 일어났고, 이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별자들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사별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서적인 수준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업은 부인의 방어기제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들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두 번째 과업은 상실과 관련하여 사별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종류의 감정과 깊은 생각들을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억압의 방어기제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인의 생생한 이미지를 기억해내고, 그와의 중요한 장면과 순간을 떠올리며, 그와 관련된 정서를 다시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세 번째 과업은 고인을 놓아주는(releasing) 것인데, 이는 사별자로 하여금 온전한 현실과 올바른 태도, 그리고 명확한 관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인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고인과 이전에 맺고 있던 관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움과 그리움의 상반되는 감정을 화해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업은 사별자들이 미해결된 애도로 인하여 소진되었던 심리적 에너지를 관계, 일, 사람들에게 재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들이 새로운 흥미와 새로운 목표를 발달시키도록 도우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 5.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 다루기: 애도 개념을 통한 제안

기독교상담은 기독교와 상담의 통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김용태, 2006).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애통은 또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보이는 슬픔과 괴로움의 반응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로 인한 슬픔에 대하여서는 일반 상담이론에서 애도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고, 애도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반면에 애통의 또 다른 측면인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서는 일반 상담학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기존의 애도의 개념을 통하여 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애도의 이해를 통하여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애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고통은 죄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줄 수 있다.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도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Feud, 1917; Bowlby, 1980). Freud(1917)는 애도를 외부 대상에 대한 리비도의 철수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정신분석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추동(推動)인데, Freud는 그 중에서도 성적 추동(sexual drive)을 무의식의 가장 주된 동력으로 보았으며, 리비도는 이러한 성적인 에너지를 가리킨다(권석만, 2017). 따라서 이와 같은 대상에 투여되었던, 무의식의 가장 주된 동력인 리비도의 철수는 개인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김홍근(2010)은 이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에게 투여되었던 정서적 필요와 애착을 철회하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겪는 것으로서, 고통을 정서적 수준에서 직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Bowlby(1980)의 모든 이론은 애착(attachment)으로 귀결되는데, Bowlby(1980)가 바라보는 애도는 애착 대상과의 분리

혹은 애착 대상의 상실로 인한 불안, 분노,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Bowlby(1980)는 사별 경험을 분리 불안의 확장으로 분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며, 애착의 상실이라는 개인의 큰 고통을 애도로 설명하였다. 동일하게 죄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sinful nature)이다(Erickson, 1983). Erickson(1983)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피할 수 없고, 죄에 기울어지게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Adams(1979)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고, 철저하게 죄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용태(2006)는 죄는 인간 성격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간의 죄성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데(McMinn, 2004; 김용태, 2018), 이는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인 죄를 깨닫는 애통은, 애도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동일하게 크나큰 고통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애도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 정상적인 애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연구자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Lindemann(1944)은 정상적 애도의 기간을 6~8주에서 2년 내외로 보았고, Morgan(1984)은 6개월을 고비로 해서 1~2년 후에는 적응을 보인다고 보았다. 반면, DSM-5에서는 애도와 관련하여 지속적 복합 애도장애(Persistent Complex Bereavement Disorder)를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로 소개하면서 친밀한 사람이 죽은 후 적어도 12개월(아동의 경우 6개월) 이후에 진단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득형(2015)은 상실 후 8~10개월, 그리고 Murphy(2000)은 4~5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대상을 상실한 애도를 종결짓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죄를 슬퍼하며, 죄의 고통을 경

험하는 애통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애도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다. Bowlby(1980)는 이를 무감각의 단계, 상실한 대상을 그리워하고 찾는 단계, 혼란과 절망의 단계, 그리고 조직 재편성의 단계로 보았으며, Worden(2002)은 애도를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사별 슬픔의 고통을 겪으며 애도 작업하기, 고인을 잃은 환경에 적응하기, 감정적 재배치와 삶을 함께 살아가기로 보았다. 이와 같이 애도에 시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기독교상담자들에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시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과정(마치 애도의 과정과 유사한)을 거칠 수 있다. 몇몇 기독교상담자들의 상담의 과정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를 제시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죄의 고백과 용서, 죄를 버리기(Adams, 1986), 회개(Collins, 1980)로만 나타내고 있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 인간이 지닌 죄의 문제를 기독교상담에서 다룰 때에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며, 필요한 과정을 함께 가는 기독교상담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애도는 정서적인 고통을 동반한다. “의미 있는 애정 대상을 상실 한 후에 따라오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 과정”(Moore & Fine, 2002: 269)인 애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방어하지 않고, 온전히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Kavaler-Adler, 2003). Freud(1917)는 애도를 외부대상에 대한 리비도의 철수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는데,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외부에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리비도의 철회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Bowlby(1980)는 애도를 애착 대상과의 분리 혹은 애착 대상의 상실이 일어났을 때 수반되는 반응이라고 보았다. 이 때 사별자는 마치 분리 불안을 경험하는 아동처럼, 애착 대상을 매달리며 찾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포, 불안, 분노 등의 강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Bowlby(1980)는 애도 과정에서 공격성과 분노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애도 반응의 표현이며, 상실에 수반하는 분노는 적대적인 가학증이 아니라 욕구와 사랑과 갈망을 나타내는 항의의 외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공격성이 억압 될 때 그것은 애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병리적 애도와 관련된 증상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Kavaler-Adler, 2003). 아이의 상실에 의해 야기된 분노와 공격성을 그 안에 고통이 들어있다는 이해와 함께 공감적 반응에 제공될 때, 분노는 가라앉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애착의 붕괴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Kavaler-Adler, 2003). 애도에서 정서적인 고통이 동반한다는 것은 애도의 과정에서 잘 나타나는데, Bowlby(1980)는 2단계, 대상을 그리워하고 찾는 단계와 3단계, 혼란과 절망의 단계에서 사별자들이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이를 극복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주장하며, 애도 과정을 회피하거나 억제할 경우 병리적으로 애도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일하게 Worden(2002)은 상실의 두 번째 과업으로 슬픔의 고통을 겪으며 애도작업을 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Abi-Hashen(1999) 역시 사별을 실제로 받아들이며, 상실과 관련한 모든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 애도 상담의 주된 과업을 보았다. 이와 동일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커다란 고통을 수반한다(김경완, 1980; 김용태, 2018). 김경완(1980)은 죄에 대한 애통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요가 젖도록 고통스러워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이해하였다. 김용태(2018)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고통으로 수치심을 예로 들었다. 죄를 짓고 난 뒤 인간이 느낀 첫 번째 감정이 수치심이며, 이는 자신이 보잘 것 없고, 형편없는, 작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의미한다(김용태, 2010).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형편없이 못한 모습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

을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어지는데, 인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llins(1980)는 죄를 인식할 때 수치심과 고통스러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상담에서 다룰 때, 비난하지 않고 기꺼이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애도는 인지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심리적 외상 관점에서 잘 드러나는데, 심리적 외상 관점에서 애도는 심리적 외상 경험 이 기존의 신념 체계와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Bonnano & Kaltman, 1999). 이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라는 심리적 외상이 기존의 신념 체계를 흔들고, 인지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인지적 구조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동일한 관점에서 Worden(2002)은 애도의 마지막 단계로 고인의 감정적 재배치와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주장했다. 이는 사별자의 마음 한 편에 고인을 기억하는 공간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인지적 재구조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죄를 깨닫는 애痛的 과정에서도 인지적인 재구조화를 필요로 한다(김용태, 2018). 이 때의 인지적 재구조화는 자기 개념에 대한 재구조화이다. 김용태(2018)는 이를 “문제가 없는 자기 개념”에서 “문제가 있는 자기개념”으로의 재구조화로 설명했다. 자신이 죄인임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자기 개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일으키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우울장애, 혹은 타인이나 다른 물질에 의존하는 경계선 성격장애나 물질남용 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수용하며, 문제가 있는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김용태, 2018).

다섯째, 애도에 대한 이해는 단절을 넘어 함께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신분석이 이해하는 애도의 기능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의 기억과 바램들을 대상(object)으로부터 떨어뜨리는(detach) 것을 의미했다(Freud, 1917). 인간은 죄로부터 떨어질 수 없으므로, 이러한 애도의 이해는 죄에 대한 이해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Bowlby(1980)부터 애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났는데, 이는 애도가 고인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Bowlby(1980)는 애도과정이 마무리되면, 애착 형태의 재조직이 일어나는데, 고인은 역할 모델 또는 동일시의 대상이 되어 사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의미를 찾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이후의 지속적인 결속 이론(continuing bond theory)로 이어지며, 현대의 상실과 애도의 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Klass, Silverman, & Nickman, 1996). 지속적인 결속 이론에서는 감정적인 연결을 끊는 것이 애도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고인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연결점을 갖는 것이 건강한 애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애도에 대한 확장된 이해는 죄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함으로써,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이다(김용태, 2018).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comfort)를 구하는 자이며,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살기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하기 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임을 의미한다. 김용태(2018)는 더 나아가 죄인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문제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제가 없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 III. 닫는 글

죄의 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강력하면서도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Erickson, 1983). 또한 많은 기독교상담자들은 이러한 죄의 문제가 인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병리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Yarhouse, Butman, & McRay, 2005; 김용태, 2018). 하지만, 이러한 죄의 문제를 상담에서 다루는데 있어서는 회개와 고백만을 통하여 해결하기에는 내담자들을 정죄하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상담자들이 주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Yarhouse, Butman, & McRay, 2005). 성경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할 때 애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애통은 죄를 슬퍼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일반 상담에서는 사랑하는 이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나타낼 때 애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상실의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과정을 의미하고 있다(Moore & Fine, 2002). 본 소고에서는 일반 상담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죄를 깨닫고 난 이후의 슬픔인 애통을 일반 상담에서 말하는 애도의 개념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기독교와 상담학의 통합적인 이해를 꾀하고자 하였다.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의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본 소고에서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애도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죄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줄 수 있다. 둘째, 애도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기에, 상담에서 죄를 다룰 때에도 시간이 필요하며, 내담자와 함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애도가 필수적으로 고통을 동반하기에, 죄를 다룰 때에도 고통에 직면해야 한다. 넷째, 성공적인 애도에서는 인지적인 재구조화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내담자의 죄를 다룰 때에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애도가 단절이 아닌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내담자가 문제를 지닌 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소고에서는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점으로 애도를 제시하며, 몇 가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의 구체적인 단계와 같이 실제적인 상담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제안하지 않았다. 애통은 크게 대상 상실로 인한 슬픔이라는 차원과 죄를 깨달음으로 인한 슬픔이라는 차원이 있는데, 대상 상실로 인한 슬픔은 일반 상담에서 애도라는 개념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애통의 경우에는 일반 상담 이론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본 소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기존의 일반 상담학적 애도의 관점을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죄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고,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및 상담학적 연구들이 진행되면,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태복음 5장 4절 후반부에서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를 의미하며, 자신의 죄를 인식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위로이다. 김용태(2018)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고자 불안해하는 사람이라고 보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들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교리는 은혜의 교리와 함께 짝지어져 있다. 죄인인 인간은 죄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타락되었고, 깨어진 상태라는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위대한 은혜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McMinn, 2008). Yarhouse, Butman, McRay(2005)는 죄와 정신병리에 대한 논의의 마지막에, 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정신병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이 되려면, 이에 대한 치료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은혜를 강조했다.

기독교상담은 은혜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즉, 우리가 죄를 먼저 짓고 그 후에야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다(McMinn, 2008). 본 소고에서 다룬 애통과 애노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를 충분히 준비시키지만, 내담자를 죄의 고통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갖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인하여, 내담자의 죄의 문제를 기독교상담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석만 (2014). *이상심리학의 기초: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17).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완 (1987). *마태복음 강해설교(상)*. 서울: 성광문화사.
- 김용태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상담학: 배경, 내용 그리고 모델들*. 서울: 학지사.
- 김용태 (2018). *기독교상담의 이해와 원리*. 서울: 학지사.
- 김태영 (2005). 상담과정에서의 죄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 *성경과 상담*, 5, 34-51.
- 김홍근 (2010). 발달적 애도를 통한 변형적 내면화 과정. *신학과 실천*, 24(2), 109-142.
- 도재웅 (1997). *산상수훈에 나타난 복에 관한 연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마경일 (1970). *산상보훈 강해*. 서울: 전망사.
- 박만석 (1995). *팔복선언에 나타난 예수의 윤리*.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암 (1990). *산상보훈*.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오덕호 (1999). *산상설교를 읽읍시다: 산상설교의 문학-역사비평적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윤득형 (2015). *슬픔학 개론*. 서울: 샘솟는 기쁨.
- 윤득형 (2018). 애도상담의 기본 원리와 목회적 접근. *신학과 실천*, 58, 417-446.
- 이창훈 (2000). *팔복(마 5:3-12) 선언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진수 (2013). *애도와 멜랑콜리*. 서울: 파워북
- 지승희 (2000).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과정 및 변화 요인 연구: 애착 이론적 조망에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i-Hashen, N. (1996). Grief therapy. In D. G. Benner, & P. C. Hill(Eds.), *Bak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 counseling*(pp. 521-523).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Adams, J.(1973).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Grand Rapids, MI: Zondervan.
- Adams, J. (1979).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more than redemption*.

- Grand Rapids, MI: Zondervan.
- Adam, J. (1986). *How to help people change: the four-step Biblical process*. Grand Rapids, MI: Zondervan.
- Bonanno, G., & Kaltman, S. (1999). Toward an integrative perspective on bereave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5(6), 760–776.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London: Hogarth Press and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Carter, W. (2005). Matthaean christology in Roman imperial key: Matthew 1.1 In J. Riches, & D. C. Sim(Eds.), *The gospel of Matthew in its Roman imperial context*(pp. 143–165). London: T & T Clark International.
- Cole, A. (2008). *Good mourning: getting through your grief*.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Collins, G. (1980).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Dallas: Word Publishing.
- Collins, G. (1993).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 Crabb, L. (1975).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meeting counseling needs through the local church*. Grand Rapids, MI: Zondervan.
- Erickson, M. (1983). *Christian theology*. (2nd ed.). Grand Rapids, MI: BakerBooks.
- Freud, S. (1917). Mourning and melancholia. *Standard Edition*, vol. 14(pp.243–258). London: Hogarth Press.
- Holmes, J. (2005). 존 볼비와 애착이론(이경숙 역.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서울: 학지사. (원전 1993에 출판).
- Horowitz, M. (1986). *Stress response syndromes*, NJ: Aronson.
- Jeong, Y. (2008). “Blessed are those who mourn” an 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sychology of relig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4, 93–111.
- Jones, S., & Butman, R. (1991). *Modern psychotherap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 Kavaler-Adler, S. (2003). *Mourning, spirituality and psychic change*. London: Routledge.

- Klass, D., Silvrman, P., & Nickman, S. (1996). *Continuing bonds: new understandings of grief*. Philadelphia, PA: Taylor & Francis.
- Lindemann, E. (1944).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1(2), 141–148.
- McMinn, M. (2008).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 Menninger, K. (1973). *Whatever become of sin?* New York: Hawthorn.
- Mollenkott, V. R. (1993). Some beatitudes for today's congregations: toward becoming more functional congregational "families." *Religious Education*, 88(1), 109–125.
- Moore, B., & Fine, B. (2002). 정신분석 용어사전(이재훈, 문미희, 신은향, 권혜경, 우재현 역. *Psychoanalytic terms & concepts*).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94년 출판).
- Morgan, L. (1984). Changes in family interaction following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2), 323–331.
- Murphy, S. (2000). The use of research findings in bereavement program: a case study. *Death Studies*, 24, 585–602.
- Parkes, C. (1972). *Bereavement: Studies of grief in adult life*.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Pink, A. (2015). 산상수훈 강해(지상우 역. *Exposi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경기: CH북스 (원전 2008 출판).
- Powell, M. (1996). Matthew's beatitudes: reversals and rewards of the kingdom.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8(3), 460–479.
- Powlison, D. (1997). Getting to the heart of conflict: anger, part 3.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6(1), 32–42.
- Powlison, D. (2001). Questions at the crossroads: the care of souls & modern psychotherapies. In M. McMinn & T. Phipps(Eds.), *Care for the soul*(pp.21–61).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 Powlison, D. (2003). Don't worry.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1(2), 54–65.
- Powlison, D. (2004). Suffering and Psalm 119,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2(4), 2–16.
- Roberts, R. (1997). Parameters of a Christian psychology. In R. Roberts, & M.

- Talbot(Eds.), *Limning the psyche: explorations in Christian psychology*(pp. 1–19).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Rynearson, E., & McCreery, J. (1993). Bereavement after homicide: A synergism of trauma and lo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2), 258–261.
- Stott, J. (2011). *존 스토틀의 산상수훈*(정옥배 역, *Christian counter-culture*).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78 출판).
- Strecker, G. (1992). *산상설교: 그 신학적 해석*(전경표, 강한표 역, *Die bergpredigt: ein exegetischer kommentar*).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전 1984 출판).
- Wallin, D. (2010). *애착과 심리치료*(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역, *Attachment in psychotherapy*). 서울: 학지사. (원전 2007년 출판).
- Weiss, R.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p. 171–184). NY: Basic Books.
- Welch, E. (2000). Medical treatments for depressive symptoms.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8(3), 44–49.
- Welch, E. (2001). Addictions: new ways of seeing, new ways of walking free.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9(3), 19–30.
- Welch, E. (2004). Boundaries in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2(3), 15–24.
- Worden, J. (2002).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 (3rd ed.).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Yarhouse, M., Butman, R., & McRay, R. (2005). *Modern psychopathologies*. Madison, WI: Inter Varsity Press.
- Zisook, S., Chentsova-Dutton, Y., & Shuchter, S. (1998). PTSD following bereavement. *Annals of Clinical Psychiatry*, 10(4), 157–163.

【 Abstract 】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Sin in Christian Counseling:  
With perspective of “mourning”

**Jang, Dongjin**

Luther Univerity

This study aimed to provide Christian counselors with some suggestions for dealing with the clients' problems of sin in Christian counseling, especially with the perspective of mourning. In the Bible, “mourning” is used not only to describe the state in which someone lost his loved object and he shows sadness, but also to indicate severe suffering because of being aware of sin. So,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mourning is used as a metaphor to understand how to deal with the clients' sin. First of all, in the mourning process, people experience severe suffering, it helps to understand that we have sinful nature and it is so strong. Second, in order to complete mourning, people need to long amount of time and mourning usually goes through a course. It means that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sin, clients need time and counselors and client need to go through a course. Third, mourning includes suffering experience necessarily. Likewise when people confront their sin, it makes them painful severely. Fourth, when mourning completes well, cognitive reorganization must appear. It means that if the problems of sin are dealt with in counseling, cognitive reorganization of the client is essential. Lastly, mourning sin means that clients realize that they are sinners and they have to live with identity of sinners.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sin, secular counseling, mourning, integration